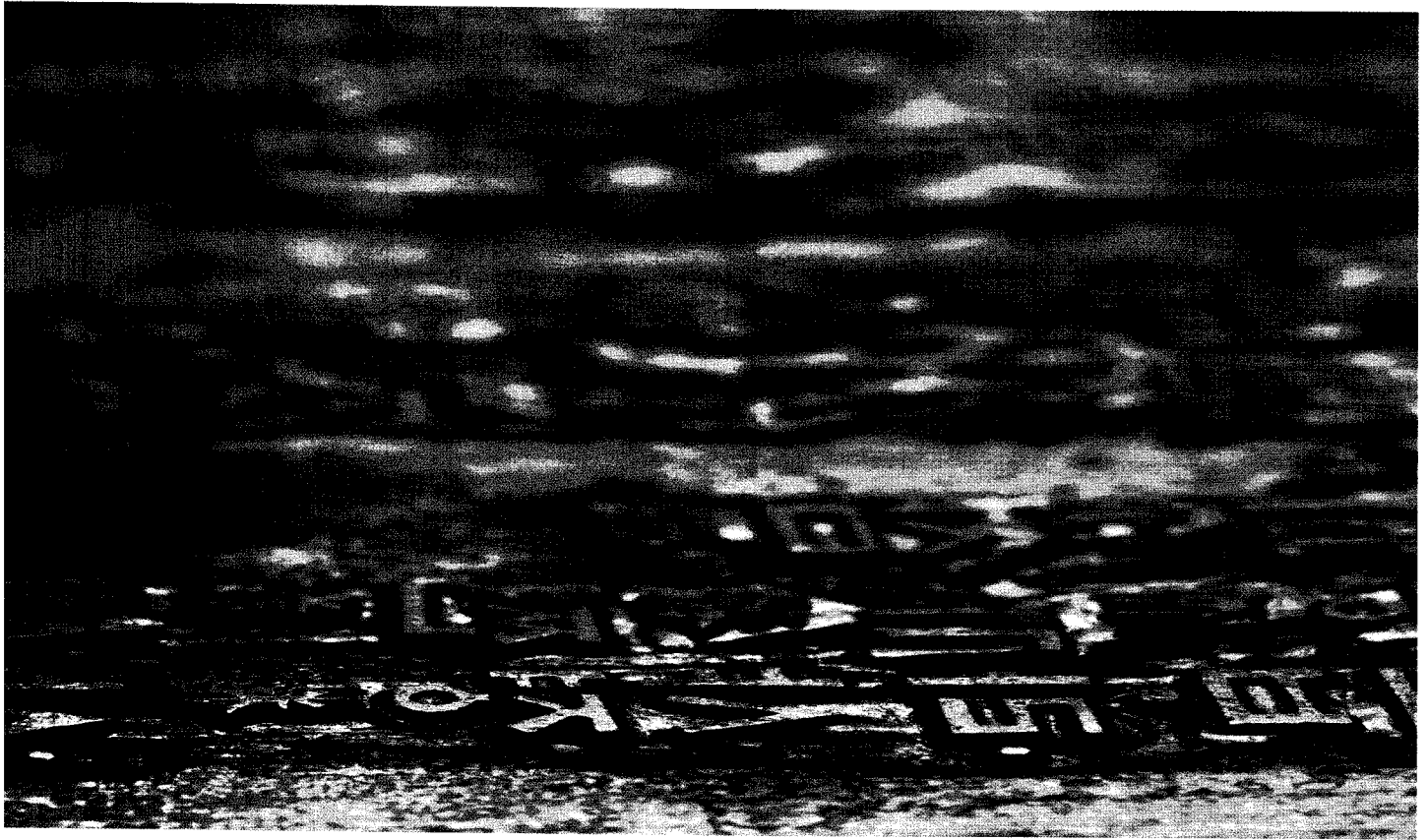


# 한국문화의 랜드마크 인쇄문화박물관 건립 필요

김 원 제 \_ 언론학박사

국내 인쇄문화전통이 '문화원형'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 인쇄출판산업의 발전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한국 인쇄문화의 아카이브이자 랜드마크(land mark)로서의 '인쇄문화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독일과 중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풍부한 인쇄문화의 전통을 지닌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적인 '인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후보였으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환경운동가인 동시에 정보통신과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한 앨 고어가 '서울디지털포럼 2005'의 개막식에서 행한 기조연설은 우리에게 인쇄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이었다.

그는 연설에서 한국사회의 디지털화가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인쇄술에 이어 세계에 주는 두 번째 선물"이며,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당시 교황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얻어온 기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스위스의 인쇄박물관에서 알게 된 것"이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할 때 교황의 사절단과 이야기했는데 그 사절단은 한국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인쇄기술 기록을 가져온 구텐베르크의 친구였다"고 덧붙였다.

앨 고어의 이 같은 연설은 2008년 출판된 국내 소설 <베니스의 개성상인>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소설을 쓴 작가 오세형은 앨 고어의 연설을 단서로 수년간에 걸쳐 개연성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였으며, 로마교황청의 기록에서 "구텐베르크의 친구인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은 로마교황청의 사절단 일원이었고, 로마 교황청에는 1452년 '신원이 그 이상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의 소개로 '42행 성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고해 금속활자의 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기록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인쇄문화 전통

앨 고어의 주장이나 소설 <베니스의 개성상인>의 내용이 사실(fact)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금속활자인쇄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1972년 '세계 도서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파리에서 개최된 '책의 역사 종합전람회'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한국인 직원에 의해 발견된 '백운화상초록 불조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 佛祖直指心體要節)'이 출품되면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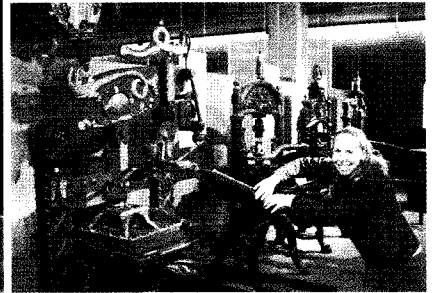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경이 아님에도 '책의 역사 종합전람회'에 정확하지 않은 이름으로 잘못 소개되어 일반인에게는 '직지심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책의 끝 부분에는 1377년 7월 청주 교외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1450년대에 인쇄된 것으로 당시까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인쇄본으로 인정받던 구텐베르크의 라틴어 '42행 성서'보다 80여년이나 앞서 인쇄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세계 인쇄문화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게 되었고 '백운화상초록 불조지심체요절'은 조선시대 기록물인 '승정원일기'와 함께 유네스코에 200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세계의 기록문화유산보호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제정한 상의 이름이 '직지상'으로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에 전시된 인쇄기



정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백운화상초록 불조지심체요절’의 원본을 직접 볼 수 없다. 1887년 한국에 온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 폴랭 드 뽀랑시(Colin de Plancy)에 의해 수집되어 프랑스로 건너가게 된 이 책은 앙리 베베르(Henri Vever)에 의해 구입되었고, 그의 유언에 따라 195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기 때문이다.

‘백운화상초록 불조지심체요절’은 스님인 백운화상이 편지한 불조지심체요절이라는 책으로 불경(佛經)이 아닌 요절(要節)이다. 원래 상권과 하권 등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38페이지 분량의 하권 1책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동양 문헌실에 전시되어 있다. 전시되고 있는 이 책의 표지에는 중국어를 전공한 동양지역 전문 외교관이었으며 이 책을 처음으로 수집한 외국인인 폴랭 드 뽀랑시가 “1377년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라고 직접 펜으로 적어 넣은 문장이 남아 있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쇄문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금속활자인쇄문화뿐 아니라 인류 최초의 인쇄술인 목판인쇄에 있어서도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목판 인쇄술은 7~8세기 경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발명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본으로 알려진 무구정광 다라니경(무구정경)이 석가탑에서 발견되었다.

석가탑은 8세기 중반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무구정광 다라니경 역시 이 시기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4세기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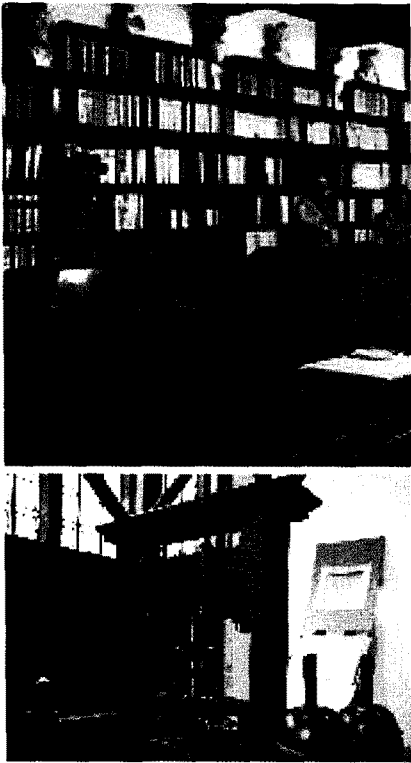
원나라에서 보다 혁신된 인쇄기법으로 등장한 목활자인쇄술 역시 국내에 빠르게 유입되었다. 14세기 말부터 조선에서도 목활자가 제조되기 시작하였다.

### 유서 깊은 인쇄문화유산, 이정표(랜드마크)가 없다(?)

우리의 인쇄문화는 역사적 깊이와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다. 그림에도 우리는 풍부한 인쇄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현재와 미래의 인쇄출판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한국의 인쇄문화는 그 자체가 경쟁력 있는 ‘문화원형’이다. 즉, 인쇄출판문화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인쇄문화는 글로벌한 보편성을 지니며 한국인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인쇄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쇄본을 만들어내었다는 매력적인 차별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인쇄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경쟁력 있는 ‘문화원형’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내 인쇄문화의 산업적 발전은 물론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드라마 <대장금>과 <허준> 등은 ‘문화원형’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대장금>의 경우 ‘문화원형’인 한국의 전통적 음식문화를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어 국내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해외



벨기에 플랜던-모레터스 박물관 전경 및 내부 모습

로까지 수출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수요도 확대되어 전통음식산업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허준>은 전통 한의학과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하여 크게 흥행한 드라마로서 역시 해외로까지 수출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관심 증대는 물론 산업적 수요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사례들과 같이 국내 인쇄문화전통이 '문화원형'으로 개발되고 활용되어 인쇄출판산업의 발전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한국 인쇄문화의 아카이브이자 랜드마크(land mark)로서의 '인쇄문화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독일과 중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풍부한 인쇄문화의 전통을 지닌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적인 '인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과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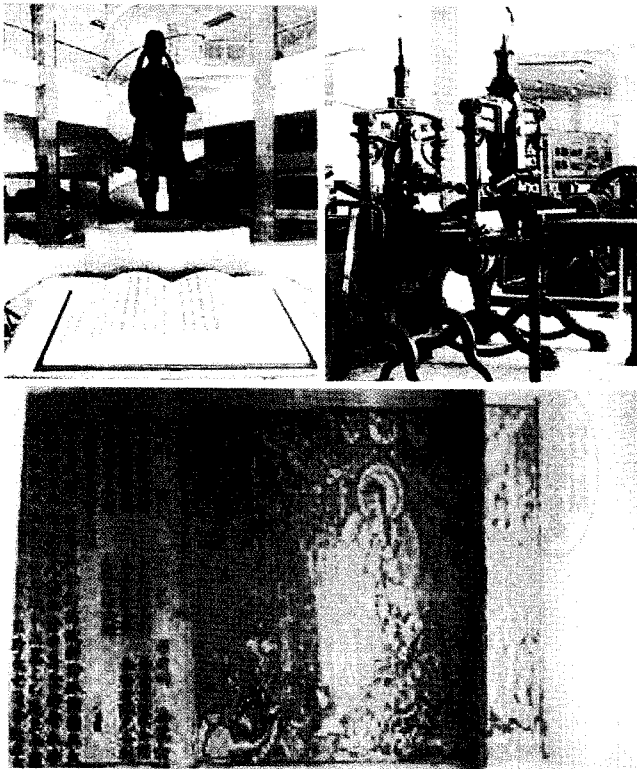
구텐베르크가 태어난 독일의 마인츠에는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은 구텐베르크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1900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인쇄문화박물관 중 하나이다. 실제로 구텐베르크가 살았던 곳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구텐베르크의 작업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으며 당시의 인쇄도구들과 뉴욕에서 경매로 획득한 최초로 인쇄된 성경 등 초

기 인쇄물들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중세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각 시대별로 유럽의 인쇄문화와 기술이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데이터 및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적인 인쇄박물관답게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고대 인쇄본 복사본을 전시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와 유물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전시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텐베르크 박물관에서는 하루에 몇 차례 구텐베르크가 성서를 인쇄 하던 방식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인쇄 작업을 해 볼 수 있는 이벤트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마인츠시와 국제 구텐베르크 협회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술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마인츠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구텐베르크 박물관과 인접한 지역인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매년 10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전인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박람회를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방문한다. 구텐베르크 박물관과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는 독일 인쇄산업과 출판산업의 선순환구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원형이며 랜드마크이다.

독일출판인서적상협회가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했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다. 금속활자가 발명되자 이곳에 15세기 당시의 작가와 인쇄업자들이 모여들면서 '북메세(Buch Messe, 책시장)'가 만들어졌는데, 이 책시장



중국인쇄박물관의 전시품들

이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박람회 의 원형이다.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박람회는 15세기 말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1993년에는 과거 사회주의권 최대의 도서박람회였던 라이프치히 도서전을 흡수하여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벨기에,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

**벨기에의 플랜틴-모레투스 박물관**

독일 마인츠의 구텐베르크 박물관 이외에도 또 하나의 유명한 인쇄박물관이 존재한다. 바로 벨기에의 '플랜틴-모레투스 박물관(Plantin-Moretus House-Workshops-Museum Complex)'이다.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의 저서에도 등장하는 이 박물관은 16세기 유럽 최고의 인쇄출판업자인 크리스토프 플랜틴(Christophe Plantin)과 얀 모레투스(Jan Moretus)가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의 중요한 책들을 펴냈던 인쇄장비와 도서관 및 건물을 그대로 박물관화 한 곳이다. 그 자체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중국의 북경인쇄대학내 중국인쇄박물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쇄 역사를 지닌 중국의 경우 북경 인쇄대학(北京印刷院, Beijing Institute of Graphic

Communication) 내에 중국인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중국에서 가장 큰 인쇄박물관이며, 2000여년간 지속된 중국 인쇄문화의 역사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시대별로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중국인의 인쇄문화에 대한 자존심은 대단하지만 그 역사적 깊이만큼이나 오래된 인쇄기나 서적들은 실제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 중국의 최고(最古)인쇄물로 868년 제작된 '금강반야바라밀경' 역시 현재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북경인쇄대학 연구팀은 기록에만 나타날 뿐 인쇄본이나 실제 활자가 전해지지 않던 북송시대의 인쇄활자인 '뿔승(畢昇)의 '교니(膠泥·찰흙)활자' 를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하여 전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돛판인쇄박물관**

석가탑에서 무구정광 다라니경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본으로 인정받던 '백만탑 다라니경'의 보유국인 일본에는 '돛판(凸版)'이라는 인쇄회사의 창립 100주년에 되는 해에 설립된 '돛판인쇄박물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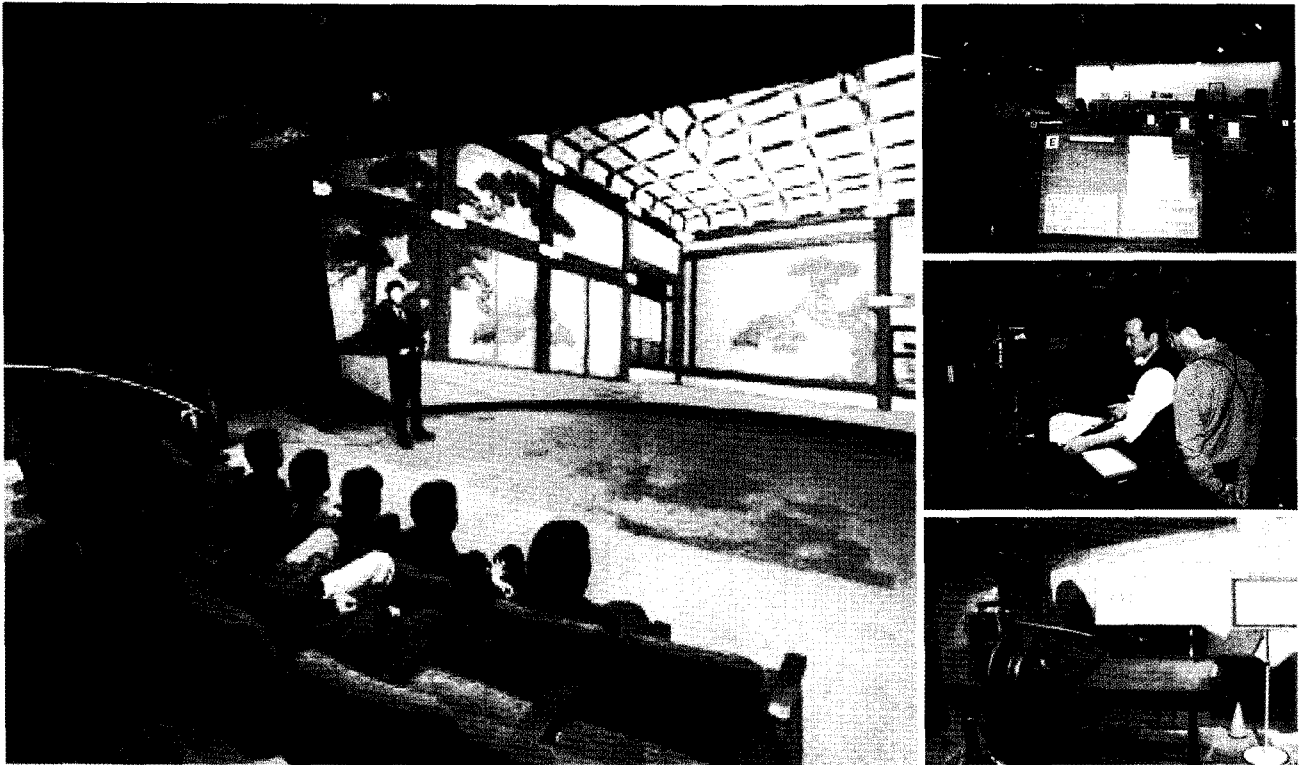
이 박물관은 기업이 소유한 건물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박물관과 체험관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돛판인쇄박물관에는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경'이 전시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군국주의 시절의 인쇄자료와 현대의 인쇄자료 등 일본의 인쇄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시물들이 모여져 있다.

또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시청각 장비들을 활용하였으며, 초기 관장을 그래픽 디자이너가 맡은 때문인지 관람객의 동선 디자인이 독특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청주시의 청주고인쇄박물관**

국내에도 한국의 금속활자 창안이 지니는 역사적 위대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과거 인쇄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의 장소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이 있다. 바로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 불조지심체유묘절이 인쇄된 곳인 옛 흥덕사 터에 1992년 설립되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내에 1,610㎡의 전시실 면적을 지닌 청주고인쇄박물관은 고인쇄도서관과 세미나실, 기념품 판매소 등도 갖추고 있으며, 신라와 고려, 조선시대의 목판본과 금속활자본 및 목활자본 등을 비롯하여 흥덕사지에서 출토된 유물 등 2600여 점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전시 이외에도 청주국제인쇄출판박람회를 개최하고 흥덕사지 관리 및 보존, 고인쇄문화 및 활자 연구, 박물관 기관지 발간, 고인쇄 관련자료 발간, 체험실 및 영상관 운영을 통한 체험학습지원 등의 사업들도 수행하고 있다.



일본 도판인쇄박물관의 전시물과 시청각 및 체험시설

##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하여 글로벌 랜드마크로 삼아야

하지만 우리 인쇄문화 역사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인쇄출판업의 중심인 파주나 서울과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선순환 구조 구축에 한계가 있다. 또한 아직은 전형적인 '박물관' 개념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국내 인쇄문화 진흥과 인쇄출판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순한 '인쇄박물관'의 기능을 넘어서는 '인쇄문화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다.

과거는 물론 현재 인쇄문화의 현황과 미래모습을 포괄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인쇄기술과 장비는 물론 인쇄를 소재로 한 영화, 음악, 소설, 디자인, 의상 등의 일상적 문화까지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인 박물관이 요구된다. 일상문화와 산업이 연계된 문화박물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물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집, 관리 및 보존, 전시, 조사와 연구, 교육 등인데, 최근에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 등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인쇄문화박물관은 수집, 관리 및 보존, 전시, 조사와 연구, 교육의 대상을 과거의 몇몇 중요한 인쇄문화유산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일상적인 인쇄문화의 발자취와 더불어 첨단 인쇄공정과 미래의 인쇄시스템까지도 포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공간으로서 인쇄문화박물관은 매점에서 단지 기념품 정도만을 판매하는 방식을 넘어 다양한 영역의 인쇄산업이

생산한 일반상품들을 쇼핑할 수 있게 하며, 인쇄와 관련된 영화와 음악, 연극 등을 감상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 기능의 측면에서는 디트로이트의 국제모터쇼와 같은 산업체험관광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쇄문화박물관이 도서출판 분야 등 관련 분야와 연계해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쇄문화박물관의 위치가 인쇄출판업체들이 집적되어 있는 인쇄출판 클러스터 내에 위치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쇄물의 생산과정 자체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인쇄문화박물관을 건립해 한국문화의 랜드마크로 삼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가치와 효용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인쇄문화박물관 건립은 시급한 과제가 되는데, 박물관 건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쇄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선 그 시작은 인쇄산업 현장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주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랜드마크로서 인쇄문화박물관 건립, 이는 우리의 인쇄문화 전통을 바로 세워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며, 인쇄문화의 지속성장이라는 미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